



제2막: 시장 상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추석을 앞둔 개포시장과 영동전통시장. 명절 대목 준비로 분주한 상인분들 곁으로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상인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역시나 세금이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음식점 사장님의 하소연에 우리는 기꺼이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세무사님과 함께 사장님의 매출 규모와 신고 내역을 살펴며, 혹시 놓치고 있는 공제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드렸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신한은행 직원이 자금난을 겪는 상인에게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시작해 자금 융통 상담까지 한자리에 해결되니, 상인분들은 “은행 갈 시간도 없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음료수를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복잡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통이 상인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